# 제1강 묵자

◇개요: 공자의 인(仁)이 보편적인 사랑이 아리라는 점을 폭로하며, 진정한 사랑은 보편적이어야만 한다고 역설했던 철학자가 묵자(墨子, BC470?~BC390?)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묵자의 철학은 겸애兼愛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지요. 최근에 기세춘 선생은 묵자의 겸애 사상이 기독교의 보편애와 유사하다는 논지를 폈던 적도 있지요. 헌신적인 이타적 사랑을 통해 전국시대의 살육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묵자의 확신은 과연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춘추전국시대를 주름잡았던 묵가의 사상이 천하가 통일되면서 중국의 지성계에서 마치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사라지고 만다는 점입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키워드: 겸애兼愛, 비공非功, 겸상애兼相愛, 교상리交相利

## 1. 묵가의 비범한 삶

1. 묵자(墨子)의 실천행위는 과도했고 절제는 아주 엄했다. 「비악(非樂)」론을 저술하고 「절용(節用)」론을 말했다. 사람이 태어나도 찬가를 부르지 않았으며, 죽어도 상복을 입지 않았다. 묵자는 만인의 사랑과 만인들 서로의 이익을 말하고 서로의 투쟁에 반대하였으니 그는 서로 분노하지 않을 것을 설파한 것이다. (…) 묵자(墨子)는 자신의 도(道)을 설명하였다. “옛날 우(禹)임금이 홍수를 막고자 양자강과 황하의 물줄기를 터놓아서 사방의 야만족과 구주(九州)를 소통시켰다. 그 때 큰 강이 300이요, 지류는 3000이나 되었고, 작은 물 흐름은 이루 다 셀 수 없었다. 우임금 스스로 삼태기와 보습은 가지고 천하의 물줄기를 서로 이어놓고 갈라놓았다. 장딴지는 마르고 정강이에는 터럭이 없었다. 폭우에 목욕하고, 강풍에 머리 빗으며, 모든 거주 지역을 안치하였다. 우(禹)는 큰 성인이면서도, 천하를 위해 몸을 수고롭게 하기를 이와 같이 하였도다!” 후세의 묵자(墨者)들은 대부분 천한 짐승가죽과 베옷을 입고, 나막신을 짚신을 신고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스스로의 고생을 철칙으로 삼고서 말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임금의 도(道)을 실현할 수 없으며 묵자(墨者)라 할 수 없다.” (…) 묵적(墨翟)과 금골리(禽滑釐)의 뜻은 좋았지만, 실천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후세의 묵가주의자들로 하여금 반드시 스스로 고행을 하게 하여 장딴지에 살이 없고 정강이에 터럭이 없는 것으로 서로 경쟁을 벌이게 했을 뿐이로다! 사회를 어지럽히기에 최상이요, 다스리기에는 최하급이다. 그러나 묵자(墨子)는 정말로 천하에 아주 좋은 인물이다. 이런 인간을 얻으려 해도 얻을 수 없다. 자기 생활이 아무리 마른 나무처럼 시들더라도 자기의 주장을 버리지 않으니 이는 정말 재사(才士)라고 하겠다.-『장자莊子』「천하天下」

2. 묵가의 거자인 맹승은 초나라의 양성군과 사이가 좋았다. 양성군이 맹승을 자기 나라에 와서 땅을 지켜주는 방위 책임자로 임명하고, 패옥을 갈라서 계약의 부절로 삼았는데, 그 계약의 내용은 “부절이 서로 맞으면 명령을 듣고 따른다”는 것이었다. 그때 초나라 임금이 죽었을 때 여러 신하들이 몰려들어 오기를 공격하여 임금의 빈소에서 죽인 난동 사건이 일어났는데, 양성군도 이에 가담하였으므로 초나라에서는 그의 죄를 다스리고자 하였다. 양성군이 달아나버리니, 초나라는 그의 나라를 거두어들였다. 그러자 맹승이 말하기를 “나는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남의 나라를 떠맡았고, 그와 더불어 계약의 부절도 나누어 가졌다. 이제 부절이 보이지는 않지만 힘으로써는 이를 막을 수가 없으니, 죽을 수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였다. 이때 그의 제자인 서약이 맹승에게 간하며 "죽어서 양성군에게 유익하다면 죽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익하다면 오히려 묵가의 지도자를 세상에서 끊어지게 하는 것이 되니, 이는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맹승은 이야기했다. "그렇지 않다. 내가 양성군과 갖는 관계는 스승이 아니면 벗이고, 벗이 아니면 신하이다. 죽지 않는다면, 지금 이후로부터 세상 사람들은 엄한 스승을 구할 때에는 결코 묵가의 문인에게서 구하지 않을 것이고, 현명한 벗을 구할 때에는 결코 묵가의 문인에게서 구하지 않을 것이며, 훌륭한 신하를 구할 때에는 결코 묵가의 문인에게서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를 위해 죽는 것은 묵가의 가법을 실천하고 그 과업을 이어나가는 방도가 되는 것이다. 나는 장차 거자의 직책을 송나라의 전양자에게 맡길 것이다. 전양자는 현자이니, 어찌 묵가의 지도자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을 걱정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서약은 "선생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면, 제가 먼저 죽음으로써 길을 열어놓겠나이다"라고 말하고는 돌아서서 맹승의 앞에서 자신의 목을 베었다. 맹승이 두 사람을 시켜서 거자의 직책을 전양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맹승이 죽자, 제자들 중에 그를 따라서 죽은 자가 백팔십 명이나 되었다. 두 사람은 명령을 전양자에게 전달하고는 돌아가 초나라에서 맹승을 따라 죽고자 하니, 전양자가 그들을 말리며 "맹승은 이미 거자의 직책을 나에게 전달하였으니, 마땅히 듣고 따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고 끝내 돌아가 그를 따라 죽고 말았다. 묵가의 문인들은 거자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을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여겼는데, 엄한 형벌과 후한 상금으로는 이러한 것을 이룩하기에 부족하다. 오늘날 세상에서 다스림을 말할 때에는 대부분이 형벌을 엄격히 시행하고 상금을 후하게 주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이것이 상고 시대에서는 세상에 괴로움과 해로움을 끼치는 것이었다.-『여씨춘추呂氏春秋』「이속람離俗覽·상덕上德」

3. 묵가 중에 거자인 복돈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진나라에 살 때에 그의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 진 혜왕은 "선생님의 나이가 연로하신데다 다른 아들도 없으므로, 과인이 이미 옥리에게 처형하지 말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는 이 사건의 처리에 대해 제 뜻을 따라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돈은 이야기했다. "묵가의 법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어야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무릇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지 않도록 금지하는 것은 천하의 대의입니다. 임금님께서 비록 제 아들에게 사면을 내려 옥리로 하여금 처형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묵가의 법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돈은 혜왕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마침내 자신의 아들을 죽여 버렸다. 아들이란 사람이면 누구나가 사사로이 여기는 바이지만, 이 사사로이 여기는 것을 죽여서 대의를 행하였으니, 거자는 진실로 공정하다고 할 만한 사람이다.-『여씨춘추』「맹춘기孟春紀·거사去私」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2.『묵자』훔쳐보기

1. 지금 어떤 사람이 남의 과수원에 들어가 그곳의 복숭아나 오얏을 훔치면 여러 사람들은 듣고서 그를 비난할 것이고 위에서 정치하는 사람은 그를 잡아 처벌할 것이다. 이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남을 해치면서 자신을 이롭게 했기 때문이다. 남의 개나 닭, 돼지를 훔친 자는 그 불의가 남의 과수원에 들어가 복숭아나 오얏을 훔친 것보다 더욱 심하다. 이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남을 해친 것이 더욱 많기 때문이다. 진실로 남을 해치는 것이 더욱 많을수록 그의 불인함이 더욱 심해져서 죄가 더욱 무거워진다. 남의 마구간에 들어가 남의 말이나 소를 훔친 자에 이르러서는 그 불인과 불의가 남의 개, 닭, 돼지를 훔친 것보다 더욱 심하다. 이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남을 해친 것이 더욱 많기 때문이다. 진실로 남을 해친 것이 더욱 많을수록 그의 불인함이 더욱 심해져서 죄가 더욱 무거워진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그의 옷을 벗기고 그의 창이나 칼을 훔친 사람은 그 불의가 남의 마구간에 들어가 남의 말이나 소를 훔친 것보다 더욱 심하다. 이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남을 해친 것이 더욱 많기 때문이다. 진실로 남을 해친 것이 더욱 많을수록 그의 불인함이 더욱 심해져서 죄가 더욱 무거워진다. 이와 같은 일에 대해 천하의 군자들은 모두 알고서 그것을 비난하면서 불의라고 말한다.『묵자』「비공非功·상上」

2. 지금 크게 불의를 행해서 남의 국가를 공격하는 데 이르는 경우는 그릇된 줄을 모르고 이를 따라 칭찬하면서 의로움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의로움과 불의함의 구별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을 죽이면 그것을 불의라고 말하며 반드시 한 사람 분의 사형의 죄가 있도록 한다. 만약 이처럼 말해간다면 열 사람을 죽이면 열 배의 불의가 되어 열 사람 분의 사형의 죄가 있도록 해야 하며, 백 사람을 죽이면 백 배의 불의가 되어 백 사람 분의 사형의 죄가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 천하의 군자들은 모두 알고서 그것을 비난하면 불의라고 말한다. 지금 크게 불의를 행해서 남의 국가를 공격하는 데 이른 경우는 그릇된 줄을 모르고 이를 따라 칭송하며 의로움이라고 말하지만, 진실로 그가 불의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말을 적어 후세에 전하기까지 한다. 만약 그가 불의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찌 그의 불의함을 적어서 후세에 전하겠는가?『묵자』「비공·상」

3. 세상 사람들이 모두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강자는 반드시 약자를 핍박할 것이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며, 신분이 높은 자는 비천한 자를 경시할 것이고, 약삭빠른 자는 반드시 어리석은 자를 기만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전란과 찬탈과 원한이 일어나는 까닭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반대하면 무엇으로 그것을 바꾸겠는가? 묵자가 말했다. "서로 사랑하며[兼相愛] 서로 이롭게 하는[交相利] 원칙으로 그것을 바꾼다."[1]『묵자』「겸애兼愛·중中」

---

1) 天下之人皆不相愛, 强必執弱, 富必侮貧, 貴必敖賤, 詐必欺愚. 凡天下禍篡怨恨其所以起者, 以不相愛生也. 是以仁者非之. 旣以非之, 何以易之? 子墨子言曰, "以兼相愛交相利之法易之."『墨子』「兼愛·中」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4. 모두 사랑하고 서로 이롭게 하는 원칙이란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묵자가 말했다. “다른 나라 보기를 자기 나라 보는 것과 같이 하고, 남의 봉토 보기를 자기 봉토 보는 것처럼 하며, 남의 몸 보기를 자신의 몸 보는 것같이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제후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임금과 신하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베푸는 은혜와 바치는 충성이 있게 된다. 또 아비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면 인자하고 효성스럽게 되며, 형제가 서로 사랑하면 화목하게 된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서로 사랑하면 강한 이가 약한 이를 핍박하지 않으며, 다수가 소수에 행패를 부리지 않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으며, 신분이 높은 이가 비천한 이를 경시하지 않으며, 약삭빠른 이가 어리석은 이를 속이지 않게 된다. 세상의 모든 전란, 찬탈과 원한은 서로 사랑한다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진 이는 이것[兼相愛]을 찬미하는 것이다.”-『묵자』「겸애·중」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